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2021. 9. 1.(수)

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이병석

전화 051-606-4164

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남성훈

전화 051-620-6400

제목

세관 국정원 등과 공조하여 약 1,35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 404.23kg 압수 및 밀수사범 구속기소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부산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최혁)는 2019. 12.경, 2020. 7.경 총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소매가 1조 3천억 원 상당¹⁾인 총 404.23k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A를 2021. 8. 3. 구속 기소하였음
-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「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」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국정원 및 해외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,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중 호주로 수출된 필로폰을 제외하고 국내에 잔존하던 필로폰 전량 (404.23kg)을 신속히 확보하고, A를 구속 기소하였음
 - 압수한 필로폰 404.23kg은 약 1,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국내 역대 최대 밀수량²⁾으로, 국내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것임
- 부산지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A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밀수사범 B를 추가로 밝혀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임
- 부산지검은 세관, 국정원 및 미국 마약청(DEA) 등 해외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외 체류 중인 공범의 신병 확보 및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, 다변화하는 마약류 밀수범죄의 원천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1) 1회 투약분 0.03g 당 소매가 10만 원 기준

2) 기존의 최대 1회 밀수량인 2018년 밀수된 필로폰 112kg의 약 4배에 이르는 양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 A○○(35세, 무직), 8. 3. 구속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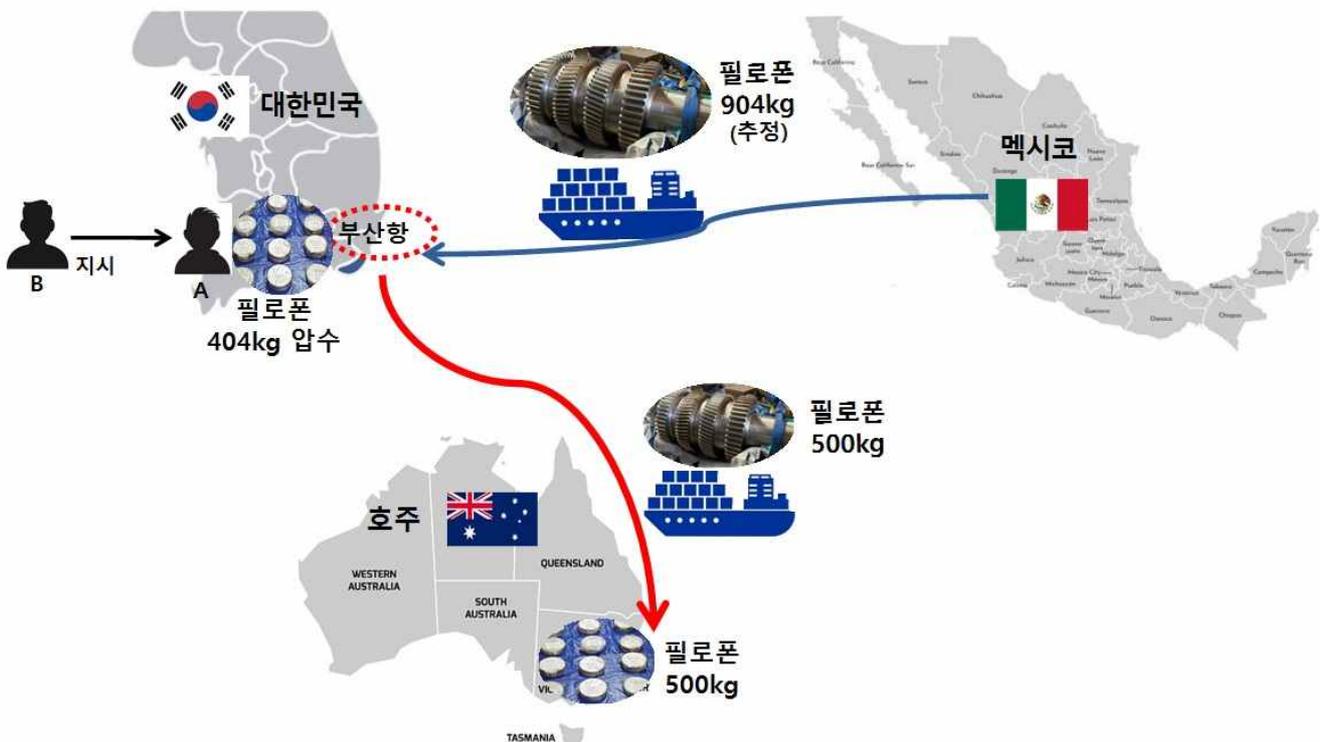
※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주범 B(남, 호주 국적)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

○ 공소사실

- B 등과 공모하여, 2019. 12.경 및 2020. 7.경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³⁾ 총 20개에 은닉된 필로폰 404.23kg 이상의 불상량을 밀수입 [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

※ 2021. 7. 6. 국내에서 압수된 헬리컬기어 9개에 은닉된 필로폰 약 404.23kg과 2021. 1.~4.경 사이에 호주에 밀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약 500kg, 총 약 904kg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

【사건 개요도】



3) 바퀴주위에 비틀어진 이가 절삭되어 있는 원통기어로 감속장치나 동력의 전달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본건의 경우 비행기 감속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임

2

주요 수사 경과

- 2021. 5. 부산본부세관 및 부산지검, 공조수사 협의
 - ※ 2021. 5.경 호주 연방경찰은 멕시코로부터 한국으로 밀수입되었다가 2021. 1.~4.경 호주로 다시 밀수출된 필로폰 약 500kg을 적발함
- 2021. 6. 부산본부세관 및 국정원, 정보분석·잠복근무·물품 경로 추적
으로 국내 잔존 필로폰의 소재 등 파악
- 2021. 7. 6. 필로폰 소재 창고, A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
실시하여 국내 잔존 필로폰 404.23kg 압수 및 A 긴급체포
- 2021. 7. 16. 부산본부세관, A 구속 송치
- 2021. 8. 3. A 구속 기소
- 2021. 8. 13. A에 대한 여죄 및 B를 추가로 인지
- 2021. 8. 27. B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

3

수사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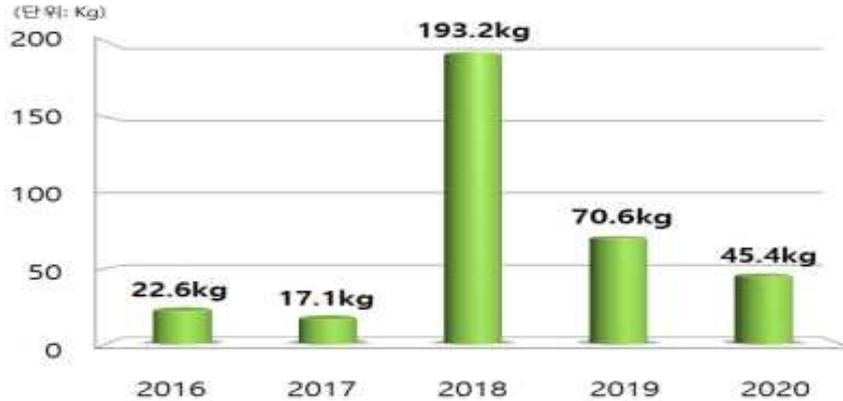
①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3개국 간 필로폰 밀수 범행임

-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대형기계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
다시 호주로 수출하다 2021. 5. 중순경 호주세관에 발각되면서 적발됨
 - ※ 2021. 5. 26. 호주 연방경찰 보도자료 배포
- 국제 마약 밀수 사범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
경우보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밀수출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는
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임
 - ※ 단순 환적이 아닌 통관절차를 거친 이례적인 밀수입, 밀수출 사례임
- 더구나, 호주로 수출하던 필로폰이 적발되어 더이상 수출이 어렵게 되자
국내에서의 보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
농후하였음

②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임

- 국내에서 압수한 필로폰 404.23kg만 하더라도 소매가 기준 약 1조 3천억 원 상당의 약 1,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마약 밀수 사상 국내 최대 필로폰 밀반입량임

※ 최근 5년간 매년 적발된 국내 밀수입 필로폰 양은 아래 도표와 같음



③ 세관, 국정원 뿐 아니라 해외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대량 필로폰 밀수범행을 적발하고, 국내 필로폰 대량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

- 수사 착수 단계부터 부산본부세관, 국정원, 美 마약청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내 잔존 필로폰 404.23kg 전량을 압수함과 동시에 밀수사범을 구속하고, 범행을 주도한 공범을 밝혀내어 수사함으로써 추가 범죄 및 마약확산을 조기 차단하였음

4 향후 계획

- 관세청, 국정원, 해외기관 등과 공조하여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 범행 및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할 예정임
-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관세청,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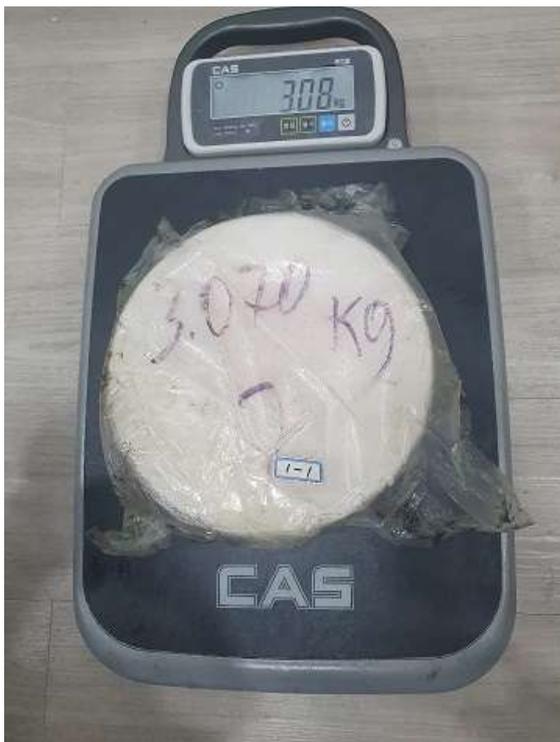
※ 관세청은 수출입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에 대비하여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해상화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임 ☑

<별첨>

압수물 사진



【압수한 필로폰 봉지 총 135개 무게 총량 약 404.23kg】



【필로폰 1봉지 모습 - 헬리컬기어 1개에 총 15봉지의 필로폰 은닉】



【필로폰 봉지당 평균 약 3.04kg】



【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헬리컬기어】



【헬리컬기어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모습】